

2006년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자유과제 논문집

다문화가족연구

2007. 4



다 문화 가 족 센 터
평택대학교 특성화사업단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실태와 사회반응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Inflow and the Society's Response in Japan

선 재 원*

〈 차 례 〉

- I. 머리말
- II. 국제비교 및 일본의 실태
- III. 정책 변화 및 노동시장 구조
- IV. 사회의 반응 : 여론조사 분석
- V. 맺음말
- * 참고문헌

〈 요 약 〉

일본의 외국인거주 비율은 한국보다는 높은 편이었지만, 유사한 소득수준의 서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외국인거주비율보다 높은 서유럽과는 달리 오히려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외국인 총수는 일반영주자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정주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법노동자와 불법노동자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90년대 후반에 적법노동자의 비중이 커졌고, 고용형태는 직접 및 간접의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서유럽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초기에는 구식민지,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받아들였으나 가족초청 등의 원인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인과의 마찰과 더불어 70년대 초반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으로 유입규제가 엄격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70년대 이전의 고도성장기에는 국내에서 노동력을 충당하였으나, 그 이후에 젊은 신규노동력의 부족과 3D업종의 기피현상 대두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확대되었다. 일치되지 않았던 정부 각 부문 간의 의견은 80년대 후반에 조정을 통하여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전문지식 소유자와 일본계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단순노동자와 비 일본계 노동자의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 평택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의 단순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노동시장은 상층에 일본계 노동자, 중층에 초기 유입 비 일본계 외국인노동자, 하층에 후기 유입 비 일본계노동자로 구성되는 3층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최근 10년간 접착기 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고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경향이 강해졌다. 그렇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지휘 감독해야 하는 30대, 40대, 50대 남성의 관심은 증대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직접고용주가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이 가장 강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인식도 강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10년간 행정의 대응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야한다는 인식도 강해졌다.

I. 머 리 말

일본은 한국보다 빠른 시기부터 외국인노동자를 유입했으나, 전문지식 소유자에 대해서는 장기체재를 허용하고 단순노동자에 대해서는 연수제도를 이용하여 단기간의 체제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앞서 진행되면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실태와 사회반응을 분석하여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한다.

일본의 소득수준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서유럽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 실태는 서유럽과 유사하지 않다. 따라서 먼저 일본을 분석하기 전에 서유럽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실태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제도가 한국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노동자유입을 경험했고 제2차 대전 이후에도 한국보다 미리 외국인노동자를 유입했다. 일본은 고된 직종(3D)을 보유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외국인노동력을 필요로 한다는 면에서는 한국과 유사하나 그 산업의 종류는 다르다.

따라서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실태에 관한 분석은 선진 서유럽 국가들의 정책과 실태를 비교분석한 뒤에 양 지역의 차이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분석위에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정책과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사회 형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받아들이는 사회구성원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마지막부분에 일본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로 한다.

Ⅱ. 국제비교 및 일본의 실태

1. 국제비교

먼저, 각 국중의 총 인구에 대한 외국인 비율은 서유럽국가에서 높았다<표 1>. 즉 2004년 현재 최저 수준의 핀란드 2.1%에서 최고수준 오스트리아 9.5%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현재 1.5%(1,974천명)를 기록하고 있어 서유럽의 평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한국(0.9%, 469천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한편, 각 국중의 총 노동자에 대한 외국인노동자 비율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국가에서 높았다<표 2>. 이는 각 국의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전반적으로 각 국의 총 외국인 비율보다 높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서유럽의 소득수준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총 외국인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2. 일본의 실태

먼저 일본의 총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표 3>. 특히 비영주자보다 영주자의 증가율이 높다. 영주자 중에는 재일한국인과 같은 특별 영주자는 감소하고 있어, 일반 영주자의 증가가 전체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비영주자 가운데에는 '정주'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주자가 일정기간(1년 또는 3년)이 경과하면 정주허가를 재차 인가받아야 하지만 직업의 선택에 제한이 없으므로, 서유럽과 비교하여 총 노동자 중에서의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총 인구 중에서의 외국인 비중보다 오히려 적었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주목할 만하다. 또한 높은 지식이 필요한 인문지식/국제업무 및 기술 부문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즉 일본의 외국인노동자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직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수의 추이를 불법과 적법, 그리고 고용형태별로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1]. 불법 외국인노동자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적법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1999년 이후 늘어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 중에서 파악 가능한 노동자의 직접 및 간접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단기간의 비율변화는 인정되지만 전시기에 걸쳐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각 국의 외국인 비율 비교 (단위: 천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오스트리아	677.1 8.5	681.7 8.6	683.4 8.6	686.5 8.6	694.0 8.7	701.8 8.8	718.3 8.9	743.3 9.2	759.6 9.4	776.8 9.5
벨기에	909.8 9.0	911.9 9.0	903.1 8.9	892.0 8.7	897.1 8.8	861.7 8.4	846.7 8.2	850.1 8.2	860.3 8.3	870.9 8.4
체코	158.6 1.5	198.6 1.9	209.8 2.0	219.8 2.1	228.9 2.2	201.0 1.9	210.8 2.0	231.6 2.3	240.4 2.4	254.3 2.5
덴마크	222.7 4.2	237.7 4.7	249.6 4.7	256.3 4.8	259.4 4.9	258.6 4.8	266.7 5.0	265.4 4.9	271.2 5.0	267.6 4.9
핀란드	68.6 1.3	73.8 1.4	80.6 1.6	85.1 1.6	87.7 1.7	91.1 1.8	98.6 1.8	103.7 1.9	107.0 2.0	108.3 2.1
프랑스	3 263.2 5.6
독일	7 173.9 8.8	7 314.0 8.9	7 365.8 9.0	7 319.6 8.9	7 343.6 8.9	7 296.8 8.9	7 318.6 8.9	7 335.6 8.9	7 334.8 8.9	6 738.7 8.9
그리스	762.2 7.0
헝가리	139.9 1.4	142.5 1.4	148.3 1.4	150.2 1.4	153.1 1.5	110.0 1.1	116.4 1.1	115.9 1.1	130.1 1.3	142.2 1.4
아일랜드	96.1 2.7	118.0 3.2	114.4 3.1	110.8 3.0	117.8 3.1	126.3 3.3	155.0 4.0	187.7 4.8	222.1 5.6	223.1 5.5
이탈리	729.2 1.7	986.0 2.0	1 022.9 2.1	1 090.8 2.1	1 340.7 2.2	1 379.7 2.4	1 448.4 2.5	1 503.3 2.6	2 227.6 3.9
일본	1 362.4 1.1	1 415.1 1.1	1 482.7 1.2	1 510.0 1.2	1 556.1 1.2	1 686.4 1.3	1 778.5 1.4	1 851.8 1.5	1 915.0 1.5	1 973.7 1.5
한국	110.0 0.2	148.7 0.3	176.9 0.3	147.9 0.3	169.0 0.4	210.2 0.4	229.6 0.5	252.5 0.5	438.0 0.9	468.9 0.9
룩셈부르크	138.1 33.4	142.9 34.1	147.7 34.9	152.9 35.6	159.4 36.0	164.7 37.3	166.7 37.5	170.7 38.1	174.2 38.6	177.4 39.0
네덜란드	725.4 4.7	679.9 4.4	678.1 4.3	662.4 4.2	651.5 4.1	667.8 4.2	690.4 4.3	700.0 4.3	702.2 4.3	699.4 4.3
노르웨이	160.8 3.8	157.5 3.7	158.0 3.6	165.1 3.6	178.7 3.7	184.3 4.0	185.9 4.1	197.7 4.1	204.7 4.3	213.3 4.6
포르투갈	168.3 1.7	172.9 1.7	175.3 1.8	177.8 1.8	190.9 1.9	207.6 2.1	350.5 3.4	413.3 4.0	433.9 4.2	449.2 4.3
슬로바키아	21.9 0.4	24.1 0.5	24.8 0.5	28.4 0.5	29.5 0.5	28.8 0.5	29.4 0.5	29.5 0.5	29.2 0.5	22.3 0.4
스페인	499.8 1.3	539.0 1.4	609.8 1.6	719.6 1.8	801.3 2.0	895.7 2.2	1 109.1 2.7	1 324.0 3.1	1 647.0 3.9	1 977.3 4.6
스웨덴	531.8 5.2	526.6 6.0	522.0 6.0	499.9 5.6	487.2 5.5	477.3 5.4	476.0 5.3	474.1 5.3	457.5 5.1	462.9 5.1
스위스	1 330.6 18.9	1 337.6 18.9	1 340.8 19.0	1 347.9 19.0	1 368.7 19.2	1 384.4 19.3	1 419.1 19.7	1 447.3 19.9	1 471.0 20.0	1 495.0 20.2
영국	1 948.0 3.4	1 934.0 3.4	2 066.0 3.6	2 207.0 3.8	2 208.0 3.8	2 342.0 4.0	2 587.0 4.4	2 584.0 4.5	2 742.0 4.7	2 857.0 4.9

자료 : OECD (<http://www.oecd.org/dataoecd/19/40/38062155.xls>)

<표 2> 각 국의 외국인노동자 비율 비교 (단위: 천명,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오스트리아	325.2	328.0	326.3	327.1	333.6	345.6	359.9	370.6	388.6	402.7
	9.9	10.0	9.9	137.5	10.0	10.5	11.0	10.9	11.8	11.9
벨기에	363.7	370.9	380.5	394.9	382.7	387.9	392.5	393.9	396.0	427.7
	8.3	8.4	8.6	8.9	8.5	8.6	8.6	8.6	8.5	9.1
체코	111.9	143.2	130.8	111.2	93.5	103.6	103.7	101.2	105.7	108.0
	2.2	2.8	2.5	2.1	1.8	2.0	2.0	1.9	2.1	2.1
덴마크	83.8	88.0	93.9	98.3	96.3	96.8	100.6	101.9	101.5	106.9
	3.0	3.1	3.3	3.4	3.4	3.4	3.5	3.6	3.6	3.9
핀란드	41.4	45.4	46.3	47.6	48.6
	1.6	1.7	1.8	1.8	1.9
프랑스	1 573.3	1 604.7	1 569.8	1 586.7	1 593.8	1 577.6	1 617.6	1 623.8	1 515.9	1 537.6
	6.2	6.3	6.1	6.1	5.8	6.0	6.2	6.2	5.6	5.6
독일	3 575.0	3 501.0	3 545.0	3 546.0	3 616.0	3 634.0	3 703.0	3 701.0
	8.9	8.7	8.8	8.8	9.1	9.2	9.4	9.1
그리스	413.2
	9.5
헝가리	21.0	18.8	20.4	22.4	28.5	35.0	38.6	42.7	48.7	121.8
	0.5	0.5	0.5	0.6	0.7	0.8	0.9	1.0	1.2	1.4
아일랜드	42.1	52.4	51.7	53.7	57.5	63.9	84.2	101.7
	2.9	3.5	3.4	3.3	3.4	3.7	4.7	5.5
이태리	332.2	580.6	539.6	614.6	747.6	850.7	800.7	840.8	1 479.4	..
	1.7	2.6	2.4	2.7	3.6	4.0	3.7	3.8	6.0	..
일본	88.0	98.3	107.3	119.0	125.7	154.7	168.8	179.6	185.6	192.1
	0.1	0.1	0.2	0.2	0.2	0.2	0.2	0.3	0.3	0.3
한국	52.2	82.9	106.8	76.8	93.0	122.5	128.5	137.3	415.0	297.8
	0.3	0.4	0.5	0.4	0.4	0.6	0.6	0.6	1.8	1.0
룩셈부르크	111.8	117.8	124.8	134.6	145.7	152.7	169.3	175.1	180.4	187.5
	52.4	53.8	55.1	57.7	57.3	57.3	61.2	61.3	65.5	62.0
네덜란드	282.1	280.5	275.2	269.5	267.5	300.1	302.6	295.9	317.2	299.4
	4.0	3.9	3.8	3.6	3.5	3.9	3.8	3.7	3.9	3.8
노르웨이	52.6	54.8	59.9	66.9	104.6	111.2	133.7	138.4	140.6	149.3
	2.5	2.6	2.8	3.0	4.7	4.9	5.7	5.8	6.3	6.6
포르투갈	84.3	86.8	87.9	88.6	91.6	99.8	233.6	285.7	298.0	303.0
	1.8	1.8	1.8	1.8	1.8	2.0	4.4	5.3	5.5	5.5
슬로바키아	3.9	4.8	5.5	5.9	4.5	4.7	4.4	4.7	5.0	2.8
	0.2	0.2	0.2	0.2	0.2	0.2	0.2	0.2	0.2	0.1
스페인	139.0	166.5	178.7	197.1	199.8	454.6	607.1	831.7	982.4	1076.7
	0.8	1.0	1.1	1.2	1.1	2.5	3.4	4.5	5.2	6.3
스웨덴	220.0	218.0	220.0	219.0	222.0	222.0	227.0	218.0	221.0	216.0
	5.1	5.1	5.2	5.1	5.1	5.0	5.1	4.9	4.9	4.9
스위스	728.7	709.1	692.8	691.1	701.2	717.3	738.8	829.6	814.3	817.3
	18.6	17.9	17.5	17.4	17.6	17.8	18.1	..	20.5	20.6
영국	862.0	865.0	949.0	1 039	1 005	1 107	1 229	1 251	1 322	1 445
	3.4	3.3	3.6	3.9	3.7	4.0	4.4	4.6	4.8	5.2

자료 : OECD (<http://www.oecd.org/dataoecd/19/20/38062264.x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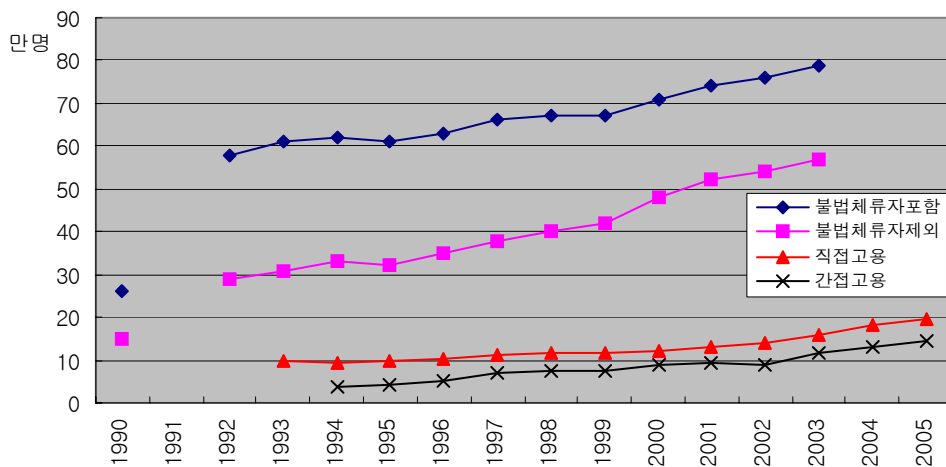
<표 3> 재류자격별 외국인 등록자 추이

(단위 : 명, %)

재류자격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전년도말 증감률
총수	1,778,462	1,851,758	1,915,030	1,973,747	2,011,555	100	1.9
영주자	684,853	713,775	742,963	778,583	801,713	39.9	3.0
일반	184,071	223,875	267,011	312,964	349,804	17.4	11.8
특별	500,782	489,900	475,952	465,619	451,909	22.5	-2.9
비영주자	1,093,609	1,137,983	1,172,067	1,195,164	1,209,842	60.1	1.2
정주	244,460	243,451	245,147	250,734	265,639	13.2	5.9
일본인배우자 등	280,436	271,719	262,778	257,292	259,656	12.9	0.9
유학	93,614	110,415	125,597	129,873	129,568	6.4	-0.2
가족체재	78,847	83,075	81,535	81,919	86,055	4.3	5.0
인문지식/국제업무	40,861	44,496	44,943	47,682	55,276	2.7	15.9
연수	38,169	39,067	44,464	54,317	54,107	2.7	-0.4
통행	55,461	58,359	64,642	64,742	36,376	1.8	-43.8
기술	19,439	20,717	20,807	23,210	29,044	1.4	25.1
취학	41,766	47,198	50,473	43,208	28,147	1.4	-34.9
기능	11,927	12,522	12,583	13,373	15,112	0.8	13.0
기업내전근	9,913	10,923	10,605	10,993	11,977	0.6	9.0
영주자 배우자 등	7,047	7,576	8,519	9,417	11,066	0.6	17.5
교육	9,068	9,715	9,390	9,393	9,449	0.5	0.6
교수	7,196	7,751	8,037	8,153	8,406	0.4	3.1
기타	155,405	170,999	182,547	190,858	209,964	10.4	10.0

자료 : 法務省入局管理局 (<http://www.moj.go.jp/PRESS/060530-1/060530-1.html>)

<그림1>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추이



자료: 厚生労働省[2004] 『外国人労働者の雇用管理のあり方に関する研究会資料』, 厚生労働省 『外国人雇用状況報告』 各年.

Ⅲ. 정책 변화 및 노동시장 구조

1. 서유럽의 외국인 유입정책의 변화

본장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일본 외국인노동자 실태의 배경에 대해 정책과 노동시장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정책의 국제적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 프랑스, 영국, 독일의 정책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勞働省職業安定局[2005];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国際研究部編[2006]).

첫째, 프랑스는 1947년 이후 경제성장기를 뒷받침하는 저렴한 노동력으로써 스페인, 포르투갈, 알제리 등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그렇지만 1974년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과 더불어 외국인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조건의 고정화, 열악한 거주지역 형성,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노동쟁의의 발생 등이 원인이 되어 '취업목적의 이민 유입'을 정지하게 된다. 현재, 자녀출산 및 가족초청에 의하여 정주외국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총 외국인노동자 수는 정체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귀국촉진운동이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일반 외국인의 가족초청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외국인수는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사회적 통합'이 가장 큰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둘째, 영국은 1950년대에 비숙련노동자로서 서인도제도를 중심으로 한 구식민지로부터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60년대 이후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고용과 치안이 위협된다는 불안으로 폭동이 발생하였다. 이후 이민자유입은 고용, 주택, 인종 및 치안문제 등의 관점에서 국익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입을 억제하게 되었다. 2000년 노동당 정권의 탄생에 의해 억제정책이 완화되었으나, 불법취업자의 증가로 이민배척을 주장하는 극우정권의 지지가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내무성)는 저기능노동자 유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민유입엄격화'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제안하였다.

셋째, 독일은 1961년부터 취업기간이 종료한 후에 귀국하고 가족초청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터키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후 교회의 가족초청 권리 주장과 기업의 취업연장 희망의견을 받아들여 취업 및 체재 장기화를 용인하게 되었다. 한편 73년 이후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과 더불어 자동차공장에서 터키인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쟁의가 발생하여 국외로부터의 노동자모집은 정지되었다. 현재는 프랑스와 같이 외국인노동자의 귀국촉진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가족초청이 계속되어 외국인수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와 같이 '사회적 통합'을 가장 큰 과제로 대두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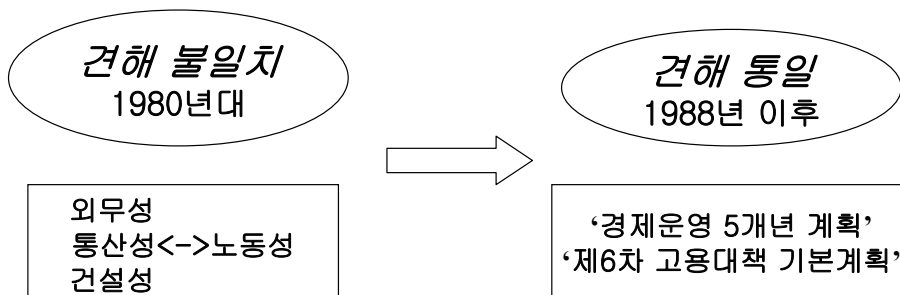
2. 일본의 외국인 유입정책의 변화

일본의 본격적인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고도성장기(1950년대 중반부터 1973년 석유파동까지)이후 안정성장기에 들어선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즉 고도성장기의 노동력공급은 국내에서 충당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고령화의 진전으로 젊은 신규노동력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3D업종 기피현상의 증가로 외국인노동자의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80년대 일본의 외국인노동자정책은 각 부문별의 견해가 일치되지 않아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 즉 외무성은 국제교류의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인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고, 통산성과 건설성은 중소기업의 노동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받아들여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노동성(현, 후생노동성)은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면 노동시장이 이중구조가 되어 외국인과 일본인 모두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그림 2].

이러한 다양한 견해들은 1988년 ‘경제운영 5개년 계획’과 ‘제6차 고용대책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전문직과 기술직은 가능한 한 받아들이나, 단순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발생, 외국인노동자의 실업문제, 사회적비용의 부담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었다(依光正哲編著[2003]29-30; ILO[2004]223-7).

그렇지만 단순노동력이 필요한 일본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수요가 절실하였고 그에 따라 불법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일본 정부 각 省 간의 조정에 의해 1990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의 주요 목적은 일반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처벌조항인 ‘不法就勞助長罪’를 신설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계 외국인의 입국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결국은 일본계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자료 : 依光正哲編著[2003], 29-30쪽, 참조작성.

[그림 2] 외국인노동자정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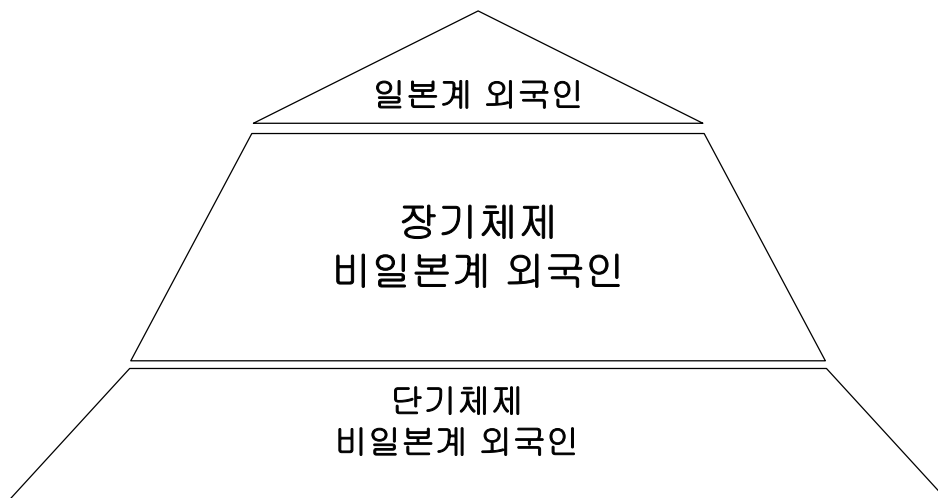
3. 일본의 외국인노동시장 구조

먼저 일본기업이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계 외국인노동자의 출신국에서 직접 채용하는 방법, 둘째, 일본계 외국인노동자 출신국의 소개업자를 통한 채용방법, 셋째, 일본국내의 파견업체를 통한 채용방법, 넷째, 직업안정소개소를 통한 채용방법, 다섯째, 일본국내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방법이다(依光正 哲編著[2003]32-4).

한편 일본의 대기업은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할 경우 각 기업의 인사부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 직접 채용하였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직접채용 할 수 있는 경험과 경제적 재원이 부족했기에 대다수를 소개업자를 통하여 채용하였다.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은 1996년 268명(남178, 여87)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남성평균 약 26만 엔, 여성평균 18만 엔이었다(雇用促進事業団・雇用開発センター[1998]). 이는 같은 해 일본국내의 각각 남성 20대와 여성 18-24세의 평균임금과 비슷했다(総務省統計局). 이렇듯 일본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국내노동자와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외국인노동시장은 일본정부에 의해 유입이 장려되었고 기업에 의해 우선적으로 채용되었던 일본계 외국인노동자가 상층, 이미 유입된 장기체류의 외국인노동자가 중층, 그리고 나중에 유입된 단기체류 외국인노동자가 하층으로 구성되었다[그림 3].



자료 : 依光正哲編著[2003], 32-33쪽, 참조작성.

[그림 3] 외국인노동력시장의 구조

IV. 사회의 반응 : 여론조사 분석

다음은 외국인노동자 유입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일본사회의 반응에 대해 일본수상 내각부에서 1990년과 2000년에 조사한 자료(内閣府大臣官房政府広報室[2000]『外國人労働者問題に關する世論調査』)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의 면접청취에 의해 이루어졌다. 회수결과는 (1) 유효회수(비율) 2,070명 (69.0%), (2) 조사불능수(비율) 930명 (31.0%)이었다. 한편 조사항목은 (1) 외국인에 대한 일반적 인식, (2) 불법노동자에 대한 인식, (3) 단순노동자에 관한 인식, (4) 장래의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한 인식, (5) 연수 및 기능실습제도에 관한 인식, (6) 對외국인 행정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었으나, 여기에서는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외국인과의 접촉기회는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했다<표 4>. 도시규모별로는 인구가 적은 마을보다는 소도시, 중도시, 대도시의 순으로 접촉기회가 많았다. 성별로는 직장에서는 남성의 접촉기회가 많았으나, 지역에서는 여성의 접촉기회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50대가 20대와 60대 이상보다 접촉기회가 많았다.

둘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표 5>. 접촉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의 주민이 다른 지역보다 관심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관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관심도 증가했다. 특히 사회 구성원간의 조정을 담당하는 연령대라고 추정되는 40대와 50대의 관심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가족종사자보다 자영업주의 관심이 높았고, 노무직보다는 관리/전문기술/사무직의 관심이 높았던 것과 부합한다.

셋째, 불법취업에 대한 인식은 10년 동안 부정적 경향이 강해졌다<표 6>. 접촉기회가 많은 대도시에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부정적 인식이 강했고,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강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부정적 인식이 약한 반면, 60대가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이에 대해 30대, 40대, 50대는 20대와 60대의 중간정도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를 지휘 감독해야 하는 자영업주와 관리/전문기술/사무직의 부정적 인식이 각각 가족종사자와 노무직에 비해 강했다. 이상에서 외국인노동자와 접촉기회가 많았던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단순노동자의 사회적 비용은 외국인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고, 다음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와 외국인노동자 자신이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이 높았다<표 7>. 이러한 경향은 도시규모별로 보더라도 유사하게

반영되었으나, 대도시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자신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앙정부/지방공공단체가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중앙정부/지방공공단체가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한편 가족종사자는 자영업주에 비해 오히려 직접고용주가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이 약했고, 노무직은 관리/전문기술/사무직에 비해 직접고용주가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다섯째, 외국인에 대한 행정의 인식은 10년 동안에 보다 충실해야한다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표 8>. 이러한 경향은 지역별로는 소도시보다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가 많은 대도시에서, 성별로는 여성보다는 남성 쪽이 뚜렷했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직업별로는 가족종사자보다는 자영업주, 노무직보다는 관리/전문기술/사무직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상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은 일본인일수록 적극적인 행정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외국인과의 접촉 기회

(단위 : 명, %)

		조사자수	교류기회 있음	일상적인 생활에서 교류 기회 있음	때때로 인사하고 얘기할 기회 있음	모는적이 있음	직장이나 주변등 가까운 곳에서 봄	때때로 길거리나 전철에서 봄	거의 본적이 없음	기타	모르겠음
조사시점	1990년	3,681	6.8	3.1	3.7	50.6	15.9	34.7	41.9	0.2	0.5
	2000년	2,070	9.7	4.6	5.0	48.4	16.1	32.2	41.7	0.0	0.2
도시규모	대도시	365	13.4	6.8	6.6	57.0	17.3	39.7	29.3	-	0.3
	중도시	796	11.3	4.5	6.8	50.5	17.1	33.4	37.7	0.1	0.4
	소도시	407	8.1	4.9	3.2	48.6	16.7	31.9	43.2	-	-
	마을	502	5.6	3.0	2.6	38.4	13.3	25.1	56.0	-	-
성별	남성	961	9.2	4.5	4.7	48.3	17.2	31.1	42.1	0.1	0.3
	여성	1,109	10.1	4.8	5.3	48.4	15.2	33.2	41.4	-	0.1
연령별	20-29	224	7.6	4.5	3.1	57.1	20.1	37.1	34.8	-	0.4
	30-39	323	10.8	5.6	5.3	51.7	18.6	33.1	37.2	-	0.3
	40-49	378	11.1	4.8	6.3	55.3	20.1	35.2	33.3	-	0.3
	50-59	481	12.9	7.3	5.6	49.1	16.4	32.6	37.8	0.2	-
	60-69	425	7.8	2.8	4.9	43.1	12.7	30.4	48.9	-	0.2
	70 이상	239	4.6	1.3	3.3	32.6	8.4	24.3	62.8	-	-

자료 : 본문 참조. 이하 같음.

<표 5>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한 관심

(단위 : 명, %)

		조사자수	관심있음	관심이 큼	어느정도 관심있음	관심없음	별로 관심없음	거의 관심없음	모르겠음
조사시점	1990년	3,681	48.6	9.5	39.1	49.9	31.8	18.1	1.4
	2000년	2,070	48.8	8.2	40.6	50.4	32.3	18.1	0.7
도시규모	대도시	365	61.9	13.4	48.5	37.5	25.8	11.8	0.5
	중도시	796	47.5	7.4	40.1	51.8	33.9	17.8	0.8
	소도시	407	44.7	7.1	37.6	54.3	34.2	20.1	1.0
	마을	502	44.8	6.6	38.2	54.6	33.1	21.5	0.6
성별	남성	961	54.3	10.4	43.9	45.2	28.8	16.3	0.5
	여성	1,109	44.1	6.3	37.8	55.0	35.3	19.7	0.9
연령별	20-29	224	41.5	3.6	37.9	57.6	43.3	14.3	0.9
	30-39	323	47.7	4.0	43.7	50.8	35.9	14.9	1.5
	40-49	378	54.8	6.3	48.4	44.7	32.8	11.9	0.5
	50-59	481	57.0	12.1	44.9	42.4	27.4	15.0	0.6
	60-69	425	46.6	10.8	35.8	53.2	31.8	21.4	0.2
	70 이상	239	35.6	8.8	26.8	63.6	27.2	36.4	0.8
	자영업주	275	57.8	11.3	46.5	42.2	24.4	17.8	-
직업	가족종사자	90	44.4	3.3	41.1	54.4	38.9	15.6	1.1
	고용자	884	51.6	8.4	43.2	47.9	34.2	13.7	0.6
	관리/전문기술/사무직	433	60.5	10.2	50.3	38.8	30.0	8.8	0.7
	노무직	451	43.0	6.7	36.4	56.5	38.1	18.4	0.4
	무직	821	43.4	7.6	35.8	55.5	32.3	23.3	1.1
	주부	486	43.4	6.0	37.4	55.1	34.4	20.8	1.4
	기타	335	43.3	9.9	33.4	56.1	29.3	26.9	0.6

<표 6> 불법취업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

		조사자수	좋지않음	좋지않지만 어쩔수 없음	기타	모르겠음
조사시점	1990년	3,681	32.1	55.0	1.4	11.6
	2000년	2,070	49.2	40.4	1.0	9.4
도시규모	대도시	365	58.1	35.3	0.3	6.3
	중도시	796	50.8	38.6	1.3	9.4
	소도시	407	43.7	45.5	1.2	9.6
	마을	502	44.6	43.0	0.8	11.6
성별	남성	961	51.3	41.3	1.0	6.3
	여성	1,109	47.3	39.7	0.9	12.1
연령별	20-29	224	40.6	54.5	0.4	4.5
	30-39	323	48.0	44.3	0.6	7.1
	40-49	378	51.9	40.2	1.3	6.6
	50-59	481	48.2	40.5	1.5	9.8
	60-69	425	55.1	33.2	0.7	11.1
	70 이상	239	46.0	35.1	0.8	18.0
	자영업주	275	48.4	42.5	0.7	8.4
직업	가족종사자	90	37.8	47.8	1.1	13.3
	고용자	884	50.1	42.6	0.9	6.3
	관리/전문기술/사무직	433	54.7	40.0	0.9	4.4
	노무직	451	45.7	45.2	0.9	8.2
	무직	821	49.7	36.5	1.1	12.7
	주부	486	49.8	35.6	1.2	13.4
	기타	335	49.6	37.9	0.9	11.6

<표 7> 단순노동자의 사회적 비용 부담

(단위 : 명, %)

		조사자수	중앙정부/지방공공단체	산업계	전체	직접 고용주	외국인노동자 자신	기타	모르겠음
조사시점	2000년	2,070	18.5	11.2	41.5	19.9	1.3	7.6	
도시규모	대도시	365	19.5	17.5	42.7	15.3	0.5	4.4	
	중도시	796	19.5	10.6	40.6	20.7	1.0	7.7	
	소도시	407	17.9	10.1	41.3	20.1	1.2	9.3	
	마을	502	16.5	8.6	42.4	21.7	2.4	8.4	
성별	남성	961	21.3	11.1	41.6	20.1	1.7	4.2	
	여성	1,109	16.0	11.3	41.5	19.7	1.0	10.6	
연령별	20-29	224	21.4	14.7	37.1	22.3	0.9	3.6	
	30-39	323	17.6	13.0	44.3	21.4	-	3.7	
	40-49	378	16.4	12.7	41.3	20.9	2.1	6.6	
	50-59	481	22.7	9.8	43.2	16.2	1.5	6.7	
	60-69	425	16.2	11.1	41.4	21.6	1.4	8.2	
	70 이상	239	15.5	6.3	39.3	18.4	1.7	18.8	
	자영업주	275	18.9	9.5	42.5	22.5	2.2	4.4	
직업	가족종사자	90	16.7	8.9	36.7	21.1	2.2	14.4	
	고용자	884	19.6	12.6	42.3	19.3	1.2	5.0	
	관리/전문기술/사무직	433	21.9	13.9	40.9	17.3	1.2	4.8	
	노무직	451	17.3	11.3	43.7	21.3	1.3	5.1	
	무직	821	17.3	10.6	40.9	19.5	1.0	10.7	
	주부	486	15.8	11.1	44.4	17.7	0.8	10.1	
	기타	335	19.4	9.9	35.8	22.1	1.2	11.6	

<표 8> 외국인에 대한 행정의 대응

(단위 : 명, %)

		조사자수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지금보다 충실하게	별로 충실하 게 할 필요 없음	기타	모르겠음
조사시점	1990년	3,681	26.9	43.2	13.9	0.2	15.8
	2000년	2,070	33.8	37.9	17.1	0.2	11.1
도시규모	대도시	365	38.6	40.3	14.2	0.3	6.6
	중도시	796	35.3	36.6	17.2	0.3	10.7
	소도시	407	30.0	39.3	16.5	0.2	14.0
	마을	502	30.9	37.1	19.5	-	12.5
성별	남성	961	37.7	38.7	16.6	0.3	6.7
	여성	1,109	30.4	37.2	17.5	0.1	14.9
연령별	20-29	224	34.4	44.6	14.3	-	6.7
	30-39	323	37.2	44.6	12.7	-	5.6
	40-49	378	39.9	39.9	13.5	0.3	6.3
	50-59	481	34.5	37.2	15.8	-	12.5
	60-69	425	30.1	32.9	21.9	0.7	14.4
	70 이상	239	23.8	29.3	25.5	-	21.3
	자영업주	275	37.1	32.7	19.3	1.1	9.8
직업	가족종사자	90	35.6	31.1	18.9	-	14.4
	고용자	884	38.2	40.7	14.3	-	6.8
	관리/전문기술/사무직	433	42.0	43.4	8.8	-	5.8
	노무직	451	34.6	38.1	19.5	-	7.8
	무직	821	27.6	37.3	19.2	0.1	15.7
	주부	486	26.7	38.5	17.7	-	17.1
	기타	335	29.0	35.5	21.5	0.3	13.7

V. 맺 음 말

이상에서 서유럽과 비교한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실태 및 정책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노동시장의 특징과 사회의 반응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외국인거주 비율은 한국보다는 높은 편이었지만, 유사한 소득수준의 서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외국인거주비율보다 높은 서유럽과는 달리 오히려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외국인 총수는 일반영주자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정주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법노동자와 불법노동자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90년대 후반에 적법노동자의 비중이 커졌고, 고용형태는 직접 및 간접의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서유럽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초기에는 구식민지,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받아들였으나 가족초청 등의 원인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인과의 마찰과 더불어 70년대 초반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으로 유입규제가 엄격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70년대 이전의 고도성장기에는 국내에서 노동력을 충당하였으나, 그 이후에 젊은 신규노동력의 부족과 3D업종의 기피현상의 대두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확대되었다. 일치되지 않았던 정부 각 부문 간의 의견은 80년대 후반에 조정을 통하여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전문지식 소유자와 일본계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단순노동자와 비 일본계 노동자의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의 단순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노동시장은 상층에 일본계 노동자, 중층에 초기에 유입된 비 일본계 외국인노동자, 하층에 후기에 유입된 비 일본계노동자로 구성되는 3층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최근 10년간 접촉기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고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경향이 강해졌다. 그렇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지휘 감독해야 하는 30대, 40대, 50대 남성의 관심은 증대되었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직접고용주가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이 가장 강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인식도 강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10년간 행정의 대응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야한다는 인식도 강해졌다.

<비매품>

다문화가족연구

인쇄 2007년 4월 28일

발행 2007년 4월 30일

발행인 : 조 기 흥

편집인 : 김 범 수

발행처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450-701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

TEL : (031) 659-8114

FAX : (031) 659-8011

<http://www.ptu.ac.kr>

인쇄 · 도서출판 문영사 (代 02-2266-8779)